

[기고] 극한호우에 대비하는 농촌사회의 자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이은수

김찬래 기자 승인 2025.08.19 22:49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 이은수

지난달 17~19일 최대 794mm의 극한 호우가 내린 경남 산청군에서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고, 덕천강 등 주요 하천들이 범람하였다. 또한 산청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홍수는 남강 댐 방류로 이어져 남강 수위가 최대치로 높아졌고, 높아진 남강 수위 탓에 배수되지 못한 지방하천, 소하천은 범람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중 배수장 17개소, 양수장 9개소 등이 침수되었고, 많은 농경지와 농촌주택이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참담한 피해 현장 곳곳을 점검하면서, 현재 시설물로는 방재할 수 없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다만 침수 피해의 책임을 공사의 배수장 운영 소홀로 돌리는 일부 농민들을 보면서 농촌용수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공사 배수장의 능력을 제대로 알리고, 앞으로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농촌사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배수장은 1970년 12월 제정된"농지개량사업 계획설계기준 배수편"에 따라 벼농사를 중심으로, 10년 강우 빈도로 설계되었다. 벼농사는 일정기간 동안의 침수를 견딜 수 있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수시설은 일정 수위(30cm)의 물을 일정시간(24시간) 동안 침수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예작물 지역은 30년 빈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설계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극한 호우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부족하다. 특히 원예작물과 같은 타작물은 짧은 침수 지속시간에도 피해 규모가 크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되고 작물이 피해를 입으며, 재해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배수장 설계기준을 100년 빈도 이상으로 무한정 상향해서 극한 호우에 대비하면 좋겠지만, 이는 유지관리나 예산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는 하천 정비를 통해 자연배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수년간 계속된 퇴적으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 주변 농경지보다 높아지면서 자연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배수장은 평소 배수문을 열어 자연 배수하고 외수위가 높아지면 수문을 닫고 배수장을 가동한다.

하지만 극한 호우 시 하천수위의 급격한 상승으로 배수장이 침수되고 전력마져 차단되면 대규모 침수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하천 정비를 통한 자연배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더욱 필요하다.

또한 배수로 등 농경지 주변에 무단으로 방치한 쓰레기 제거도 시급하다. 호우 시 방치된 쓰레기는 배수로로 유입되어 배수능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 비닐이 유입될 경우 배수 펌프의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큰 침수 피해를 가져오며, 농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지난 3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는 1시간 동안 142.1mm의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는 200년에 한 번 내릴법한 역대급 폭우였다. 문제는 이러한 이상기후가 이제 우리나라 어디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장 증설 및

시설 성능개선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앞서 말했듯이 한계가 있다. 결국 농촌사회의 효율적 재난 방지를 위해서는 농민들과 지자체 및 공사의 협력이 필수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찬래 기자 kd@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